

89. 너희들의 과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2015.07.1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하는 기도(Dwelling Prayer)로 데려오고 싶어. 이곳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야.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나와 함께 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품고자 하는 의도야. 나를 보고 듣는 것은 추가적인 것이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이것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았어 내 사랑아?

(클레어) 조금이요.

(예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일찍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이제는 너희들 모두가 이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야. 너희들의 의도가 중요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생이지만, 나는 나의 종들과 나의 신부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에 너희들이 매우 세심해지고, 관찰력있고, 감사하기를 바래. 감사함은 진정으로 나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감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고군분투를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옆에 있고 너희들의 안에 있어.

나의 신부들아, 내가 찾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찬양이야. 나는 너희들이 나의 기적들, 나의 동정, 나의 자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경외하는 한 가지에 연결되어질 때 찬양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서 나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깊이 생각해보아라. 그것이 신성한 사랑의 산들바람을 통해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해라. 그 생각들의 바로 그 마음 속에서 헤엄치고, 날고, 솟아오르고 그것이 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도록 해라.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찾게 될 거야. 나는 쉽게 잡히지 않아.

나는 너희들 모두가 각각 할 수 있는 사랑의 종류를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어. 나는 깊고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있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의 깊이로 부르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의 충만함에 너희들을 풀어주고 싶어.. 너희들이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이동방법으로. 그것들은 퇴적층 아래에 층층이 묻혀있어: 수년간의 고통, 무관심, 세상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실망, 산산조각난 꿈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서 너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선택한 길을 이해하지 못해. 너희들은 내가 왜 특정한 일들을 너희들의 삶에 허용하였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서 전체의 그림을 가질 때까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의 꿈들을 이룰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어. 너희들은 이미 죽고 썩어서 너희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너희들 안에 묻혀있는 과거를 놓아주지 않고 매달리고 있어.

이것들이 너희들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야. 현재의 아름다움과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리면 그것은 나와 너희들을 분리시킬 거야. 여기에는 비통함이 있어: “하나님, 그것을 왜 허용하셨나요?” 여기에는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 “하나님, 그것을 왜 허용하셨나요?” 여기에는 깊은 실망과 혼란이 있어: “왜요 주님, 왜요?”

나는 너희자신이 단단히 붙들고 있는 너희들의 의견들을 내려놓을 때까지 너희들을 치유할 수 없어. 너희들이 영원하신 분의 빛 안에서 너희들 자신의 한정된 이해가 헛되다는 것을 볼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고 싶지만 너희들의 의견이 얼마나 매우 쓸모가 없는지를 알때까지 나의 영광을 반드시 깊이 숙고해야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치가 없게 될때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그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너희들의 마음안에 모든 의문들과 함께 그 실망을 짊어지고 있을 거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을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준다는 나의 절대적인 약속, 나의 행위, 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해.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주었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보다 너희들의 성취에서 가치를 찾았을 수도 있어.

사람의 순가치가 뭐야??? 그들의 소유? 그들의 부? 그들의 가족? 그들의 명성? 이것들 중 어느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한 나의 고난의 촛불을 붙들 수 있어? 알겠어? 하나님의 몸과 피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혔어. 너희들이 성취한것들 중 하나라도 갈보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것들은 모두 어떤 날에는 기념비로, 또 어떤 날에는 모래더미가 되는 지구의 먼지와 같지 않아? 너희들의 추론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보여?

나는 너희들의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어. 나는 너희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들 자신을 비우기를 요청하고 있어. 나만이 너희들의 삶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의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 앞에서 너희들의 자신을 비우면 나는 나의 지혜, 이해, 그리고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영혼의 엄청난 가치로 너희들을 채울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천번 갈보리에서 겪은 일을 겪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얇은

인간의 지혜와 너희들의 가치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내려 놓고, 내가 너희들에 삶에서 이루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과, 허용하신 것은 물론 제가 꿈꾸거나 갈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더 많은 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너희들 자신에게 말해라.

이것이 아직 나와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너희들에게 내가 찾고 있는 자세야.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비우고 너희들의 모든 지혜가 너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래.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아주 다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랑스럽게 말해. 하지만 나는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말해야해: 너희들이 아직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

너희들 자신을 버려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나의 소중한 사람들아, 이것을 지금 너희들의 이해에 적용시키면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다정하게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기다려.